| 현불 논단 |

생명존중과 명상



선업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최근 곳곳서 생명존중행사 잇달아
생명 의미, 참가자에게 생생 전달

불교 계율 중 첫 번째가 '불살생계'
그만큼 생명존중을 중요 가치 여겨
자비희사 사무량관에도 그대로 담겨

자애명상 통해 분노를 자애로 대치
명상 후엔 범위 넓혀가며 통찰하길
자애 충만하면 존중 못할 존재없다

요즘 곳곳에서 생명존중행사가 열리고 있다. '살사(살며 사랑하자)' 그리고 '라이프워킹(Life Walking) 생명을 향한 한걸음' 등 행사의 제목도 신선하고, '생명사랑지킴이 서약식', '도전! 자살예방 4행시 짓기', '스마트폰 중독 점검하기(Log off, Life on)' 등 체험 부스의 프로그램도 참가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노력들은 생명존중의 의미를 참가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걷기 행사의 경우도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한 참가자의 말처럼 많은 이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계율의 첫 번째가 '불살생'인 불교는 생명존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생명존중에서 '존중'의 경우, 어원을 살펴보면 대상물을 되돌아보고 배려하고 숙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모든 생명체들을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인 것이다. '존중'이라는 말은 또한 어떤 사실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사랑의 감정 · 정서 · 열망을 반영하는 가치어(value word)이다. 그러므로 '생명존중'이라는 말에는 이미 '생명체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은 수행방법에 그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비희사 사무량관이다. 특히 마음속에 분노의 가시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부처님은 자애명상을 권하고 있다. 중생들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속에 그 가시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아신 부처님은 가시를 가진 이들이 스스로를 찌르고 괴로워할 때 분노를 자애로 대치하여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자애명상의 시작은 우선 자신을 향해서 "내 자신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발원합니다", "내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원합니다"라고 명상한다. 그 후 한정되지 않은 대상을 향해서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발원합니다", 또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원합니다"라고 자애명상을 한 뒤, 그 후 자애의 느낌이 잘 일어나는 한정된 대상을 향해 명상을 한다.

예를 들어, 고맙고 존경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향해 먼저 자애명상을 한 후 자애심이 충분히 일어나면 차례로 가까운 가족, 중립적인 사람 순으로 대상을 넓혀나가는 것이다.

특히 용서의 과정을 통해, 싫어하는 사람에서 미워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넓혀나간다는 측면은 비폭력에 기반한 생명존중의 좋은 본보기이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라고 되뇌이다 보면 존중하지 못할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통찰하게 된다.

사무량관의 두 번째인 연민명상의 경우는 "당신이 몸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또는 "당신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이라고 명상하면서 대상에게 연민을 보내면 된다. 이어서 함께 기뻐하는 '수희명상'과 '나다 너다' 하는 분별심을 제거한 '평등명상'을 계속하게 되면 더불어 함께하는 '평상심'으로 존중의 정신을 주변과 나누게 된다.

생명경시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생명존중 운동으로 회복시켜야 할 이 시기에 부처님의 명상법은 생명살림의 최고의 방법임에 틀림없다.

社 說

포교 행정력 강화 제도 필요

조계종 포교원이 9월 30일 새로운 포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그동안 포교환경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해 왔다. 2000년 초반의 포교환경보다 현재 포교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탈종교화 사회에서 포교는 지상과제가 되고 있다.

개별로 분산된 사찰 단위의 포교로만은 이러한 포교지형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어린이 청소년 등 계층 포교와 새롭게 부각되는 뉴미디어 포교에 대한 접근 등은 종단 삼원 중 하나인 포교원 만의 일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포교원은 역대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다양한 종책 사업을 진행해왔다. 결과는 어떠한가? 포교원 만의 구호에 그치지 않았는가? 그 결과는 300만 불자의 감소였다.

그 이유를 돌아보면 비단 포교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포교원이 좋은 종책을 개발해 내고 이를 집행한다고 해도 정작 일선 사찰의 호응이 떨어지고, 포교원이 강력하게 집행할 터전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아무리 매번 포교원 집행부가 바뀌고 좋은 종책을 내놔도 이를 하달하여 시행하는 사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포교 · 전법 활동가 스님으로 구성된 전법단을 구성했지만 이 또한 역부족이다. 지역포교, 계층포교 등 다양한 포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찰단위의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불교는 위기다. 이 위기 극복은 바로 전법포교에서 나온다. 포교원의 종책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총무원과 교육원이 적극적으로 '포교'라는 주제에 머리를 맞대고 포교행정력이 담보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

수마노탑 국보 승격 기원한다

요즈음 정선에서는 "보물 제410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 승격을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선 지역 9개면 100여 단체에서 이 같은 현수막을 내걸었고, 이들 단체 중에는 개신교와 가톨릭 단체도 있다고 한다. 종교를 떠나 정암사 수마노탑의 국보 승격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정암사와 정선군의 수마노탑 국보 승격 사업은 조금은 아픈 역사이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인데 2차례 실패를 맛봐야 했기 때문이다. 2번의 실패 후 정암사와 정선군은 절치부심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 부결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절차를 거쳤다. 정암사와 수마노탑을 알리는 '자장율사 순례길'을 지난 6월 개통하기도 했다.

수마노탑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석탑이다.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마노탑은 한국에는 드문 '전탑계 모전석탑'이다. '전탑계 모전석탑' 중 대표적인 것이 국보 제30호 분황사 모전석탑으로, 수마노탑도 분황사의 조탑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분황사계 조탑 양식이 경상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고려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 만큼 한국 건축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가진 탑이라는 것이다.

수마노탑이 국보로 승격되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정선아리랑과 함께 유 · 무형문화재가 공존하는 문화유산 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선군의 계획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정암사는 8월부터 국보 승격을 기원하는 100일 기도를 진행 중이다. 탑이 국보로 승격되면 순례객들의 신심을 고취시킬 신행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암사 대중의 기도가 국보 승격으로 이어지길 기원해 본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당신의 '물 소비량' 아시나요

우리집 싱크대와 욕실 샤워기는 오래 전부터 절수용으로 교체해 사용해 왔다. 변기 물을 한 번 내릴 때마다 13L의 물이 소비된다는 걸 알고는 변기 속에 벽돌 한 장도 넣었다. 평소 화장실을 사용할 때면 아들과 나는 볼 일을 보고 한꺼번에 물을 내린다. 엄마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으면 '나도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잘됐다'라면서 줄을 선다. 그러면 아들까지 볼일을 본 뒤에야 물을 내리는 식이다. 그럴 때면 아들은 지구를 아낄 수 있다며 기뻐하곤 한다. 이렇듯 소소한 물 절약에도 불구하고 우리집 물 사용량은 전년 대비, 혹은 전월 대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집에서 아들이 키우는 물고기의 수조가 많아지고 화초들의 화분이 커지면서 물 사용량이 나날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하루 물 사용량은 얼마나 될까? 관리비 고지서를 찾아 한 달 물 사용량을 가족수로 나눠 보았다. 지난달 기준으로 한 사람 당 하루 176L의 물을 썼다. 2L 페트병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이 88병의 물을 하루에 쓰고 있는 셈이다. 어마어마한 양이다. 평소 고지서를 볼 때는 톤으로 표기된 단위 앞에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를 가늠하지 못했는데, 페트병의 개수로 수치화되니 조금은 감이 잡힌다.

88개의 페트병을 집 어딘가에 세워두었다고 상상해보라. 하루에 내가 쓰는 물 양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서울시민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286L라는 것이다. 무려 2L 페트병 143개를 하루에 쓰고 있는 것이다. 이 사용량은 도쿄 200~250L와 뉴욕, 런던 100~200L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다.

이렇게 많은 물 소비량에 대해 서울대 빗물연구센터 한무영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물맹'이라는 단어를 썼다. 글자를 모르면 문맹이듯 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물맹'이라는 것이다.

한 교수는 자신의 물 사용량을 체크하고 공공기관부터라도 절수형 변기, 빗물 저금통 설치 등을 통해 '탈물맹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물 절약과 빗물 활용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한 교수는 서울대와 스타시티라는 건물에 빗물 저장고를 설치해 빗물을 활용해 왔다. 스타시티 건물 지하에 있는 3,000톤의 빗물 저장고는 인근 지역 홍수 방지, 조경수 활용, 화재 등 비상시에 사용돼 두루 주변을 이롭게 한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는 빗물인 셈이다. 이 건물 세대당 수도 요금이 한 달 평균 100원에 불과하다고 하니 '빗물이 곧 돈이고 자원'이라는 한 교수의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세계적으로 깨끗한 물은 부족해지고 우리나라도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지금, 촐촐히 내리는 가을비 한 방울 한 방울이 새삼 아깝게 여겨진다. 잦은 태풍으로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이 가을, 빗물 저장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집 베란다에 가득한 화분들도 빗물을 흠뻑 마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집에 빗물 저장고를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물 절약을 생활화해서 '물맹'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조금 더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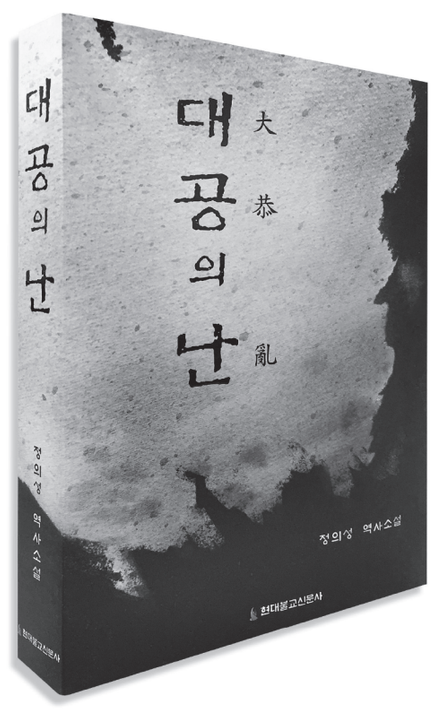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